

# 광산구 제설장비·인력 보강 급하다

## 제설 관리구간 도로 650km 타구청보다 2배 행정력 집중해도 '한계'... 민원 폭주 잇따라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해 광산구 제설작업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설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올 들어 수차례 폭설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제설작업 인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내린 눈 때문에 13일 오전부터 20여 건 이상씩 제설작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제설작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제설작업 인원이 폭우함에 따라 15t 제설차량 3대를 대당 하루 100만원씩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또 8.5t 덤프트럭 1대와 5t 트럭 2대

등의 장비를 동원 17명의 직원이 새벽 2시부터 이른날 오전 10시까지 밤샘근무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주민 K모(48)씨는 "수완지구 지하차도 입구가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이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평소 1~2분 거리가 30분이상 지체됐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 같은 제설작업 인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광산구가 관리하는 주요구간 노선이 650km에 달해 타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구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현역의 제설장비와 인력으로는 한계라는 것.

이 때문에 광산구의 경우 전체 650

km 구간 가운데 주요 간선도로 및 교량, 위험구간 등 108km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설작업 등이 미처지 못하고 있는 이면도로 등은 민원이 제기될 때 곧바로 출동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타 구청보다 관리구간이 워낙 넓어 사전에 열화칼슘을 600t이나 확보해 놓아 적절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그나마 잔여량이 100t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기원대 최승렬기자 wtkee@

##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주영찬 담양군수 권한대행

# 슬로시티 웰빙 관광 적극 육성

주영찬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농가소득증대와 웰빙관광 거점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새해 7대 국정과제로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나누는 맞춤형 복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녹색환경 조성 ▲웰빙 관광 거점도시 조성 ▲적극적 투자유치 ▲활기찬 지역



방문을 개설하는 등 테마별 누정(樓亭)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저가형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분야 협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군은 새해 군정의 기초를 '책임행정, 열린행정, 창의행정'으로 정하고 공직사의 관행을 혁신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담양 한우 품질향상 주력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군은 이 가운데 '농업과 관광사업'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관련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기본인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 전남도의 '제2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44%까지 확대하고 무농약·유기농 재배단지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쌀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도 실익을 따져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쇠고기 가격 추격제와 유기인종 생산자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산표인 '대소맑은 담양한우'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대나무 산업을 위해 죽조차 명품화, 죽순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도 지

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주영찬 권한대행은 밝혔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향토산업대상으로 선정된 '담양 죽순' 역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군은 지역을 상징하는 자원인 대나무와 가사문화, '슬로(Slow) 시티' 등으로 대변되는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해 웰빙 관광지의 이미지를 굳히기로 했다.

군은 죽녹원, 관방재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창령 삼지천 슬로시티 등에서 관광객이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흘려져 있는 정자 등 역사문화 명소를 하나로 묶는 가사문화 탐

## 135만㎡ 바이오에코 조성

이북에 135만㎡ 규모의 담양 바이오에코밸리 조성사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에 공헌할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입주업체들을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새해군정 과제로 꼽혔다.

기존 시책 중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대신 주민 편의와 사업 효율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주영찬 권한대행은 "그동안 갈등과 분열을 보였던 담양에 새해는 화합의 분위기를 확고히 하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담양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b17@

## 여수 복지행정 민·관이 뭉쳤다

여수시 복지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여수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 동백원,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9개 여수지역 장애인 사회 복지단체와 시설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요 복지행정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복지단체와 시설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한단계 앞서는 여수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주일 전남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회장은 "민·관이 복지행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수시가 복지행정의 롤모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4월 여수 디오센터에서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제5회 사회복지 전국대회 행사 유치를 위해 오는 2월 유치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숨이불 덮은듯... 녹차밭 설경 장관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의 드넓은 녹차밭이 14일 하얀 숨이불을 두른듯 환상적인 설경을 연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동호안 용역 부실... 조속한 대책 마련을”

광양 5개 시민단체 촉구

광양지역 5개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호안 사태 비상대책위'는 13일 지난해 8월 발생한 광양 동호안 독붕괴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사)한국지반공학회의 용역결과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관련기업들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용

역은 제방의 부실시공과 동호안의 무분별한 준설 등 붕괴사고에 미친 조사를 누락한 부실한 용역"이라며 "광양제철과 인산이엔터 등 두 관련 회사는 수년씩 걸리는 법적 공방 대신 여론철 태풍피해 등에 대비해 사고제방의 항구적 대책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현재 전체 제방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물론 사고도로 또한 가로방향으로 균열

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광양시나 공공기관이 의뢰한 용역기관에서 재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진보연대 김경기 대표는 "사고제방이 법적으로 도로라던 건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실공사 책임 또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형수기자 choung47@

## 보건소장 행정직 임명, 토목직·복지직 면장 발령 화순, 고정틀 깬 발탁인사 눈길

민선 4기들이 화순군이 지난 3년간 사무관급 인사에서 직책을 파괴한 인사를 여러 차례 단행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초빙,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조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보건직이 도맡았던 보

건소장 자리에도 행정직을 임명, 지부진행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노인전문병원 설립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칫 사업철회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김연수 보건소장이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적극 유치로 급선부, 집단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토목직, 복지직을 이양면장과 북면장에 각각 임명, 어느 면보다 뛰어난 특성화 사업을 펼치는 성과를 올렸다.

토목직출신 이양면장은 한약초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 농업인들과 함께 한약초 작목교육을 받는 등 솔선수범해 농업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주민 A씨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밥 그릇' 논쟁을 타파하며 고정틀을 깬 화순군의 인사정책이 신선감을 준다"며 "앞으로 화순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윤수기자 unsu@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223-1772 ☎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폭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농성동]**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업무 최적 (현 금융기관 사용)

▷ 주차장 완비

▷ 지하철역 연계 (농성역)

● 임대면적 1층 / 200평

● 용도 : 사무실

**임대문의 062)361-3001**

**광문공인중개사 062-365-1920**

● 모델 임대 매매 전문: **교환**

- 신축 무인텔 급임대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델 부지다량 확보!
- 일반모델 월매출 5천이상 급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델 임대 매매 전문 →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알짜배기 모델!
- 순천 모델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델 급매매 다량 확보!

● 목포 → 모델, 사무나, 주차장, 세차장

● 대지 → 350평, 건평 600평 월순소득 2,000만원 이상 확보

● 교환조건 → 모델, 땅, 토지, 임야 해남권 → 독점 모델 매매가 5억7천 월순소득 1,500만원 이상 확보!

● 모델임대사업 ●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필 100%

**(주)국민법률경매** 062)364-8700 H.P 010-4608-3700

**공인중개사: 강영희**

지역	종류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여수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주택	119/23	119	1,511	1511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 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나찰(전금부족시 최저급리 대출안심)·명도(이사)